

전남도, 노후산단 미래 신산업 육성기지 조성 ‘탄력’

내년도 산단지원 국비 491억 반영
기반시설 정비·진입도로 개설 추진
정부 산단 환경조성사업 공모 선정
광양·여수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전남도가 추진중인 노후산단 개선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 정부에 산안에 노후 산단 기반시설 정비, 진입도로 개설, 근로환경 개선 등 산단 지원 분야 총 6개 사업에 491억원(총사업비 4202억

원)이 반영돼 신산업 육성기지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산업단지(2024년 1분기 기준)는 총 107개소, 지정 면적 22만7364㎡로, 입주업체 3884개, 고용인원 8만6628명이다. 생산액은 약 33조원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준공한 지 27년이 지난 대불국가산단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492억 원으로 도로 개보수 등 노후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또한 2023년

12월 지정계획 승인 고시된 강진 제2일반산단의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93억원을 확보해 2027년까지 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노후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에도 6개 시군 11개 사업이 선정돼 총사업비 466억원을 확보했다. 2027년까지 노후 산단에 청년문화센터 건립, 거리 조성, 공장 리뉴얼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산업구조 다변화 요구에 대응

하고, 탄소 저감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사업(34개 사업·1조3056억원)과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27개 사업·3567억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수국가산단을 거점으로 광양·울촌제1산단과 여수·광양항을 연계한 광양만권 산단은 저탄소·스마트·고부가 소재·부품 산업기지로 조성한다. 또 영암 대불국가산단을 거점으로 영암 삼호, 해남 화원, 목포 삼진 일반산단을 연계한 서남권 산단은 친환경 중소형선박

및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 중심지로 육성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자유치국장은 “정부의 건축재정 기초에서도 미래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산업단지 지원 분야 국비를 확보, 지역 일자리를 공급하고 지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전남도,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센터 개소

청년·신혼 전세사기 피해 상담
만원주택 입주자 모집·운영도

전남도는 청년, 신혼부부 및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할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를 지난 20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전남도의회 최명수 안전건설소방위원장과 손남일 부위원장, 나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청년·신혼부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출발을 축하했다.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는 ‘전남형 만원주택’의 입주자 모집과 운영, 시설물 관리,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지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상담·정보 제공, 주거복지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예정이다.

센터는 전남개발공사 1층에 158㎡ 규모로 설립됐으며 전남개발공사가 위탁 운영을 맡아 진행한다. 주거 관련 상담이 필요하면 무료전화(1551-8424)로 문의하거나 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명창환 부지사는 개소식에서 전한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전남도 주거복지센

터가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센터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이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이곳에서 도민의 꿈과 미래가 자라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충모 사장은 “주거복지센터가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이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전남형 만원주택’의 입주자 모집단계부터 퇴거 후 지역 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으로, ‘월 1만원’이라는 상징적 금액으로 30평형대 아파트를 제공한다. 이 정책은 지역 소멸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전국적인 주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아 인구정책과 관련해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현재 고흥, 보성, 진도, 신안, 4개 군에서 사업 부지가 확정됐으며, 전남개발공사와 협력해 2026년 첫 입주를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내년 보훈·참전유공수당 30% 인상

2026년 60% 등 순차적 추진

광주시가 독립유공자 유족, 6·25참전용사 등 보훈·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인상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참전유공자·독립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보훈·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11월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인상된 금액이 유공자에게 지급된다.

현재 광주시 보훈·참전유공자는 독립·

6·25참전·순직군경 유족 등 7000여명이다. 명예수당은 연령대에 따라 매월 5만원부터 13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는 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30%, 2026년 60% 등 순차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5개 자치구와 분담비율도 현재 8대 2에서 내년부터 7대 3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와 자치구의 보훈·참전유공자수당 예산은 올해 61억3000만원에서 2025년 84억2500만원, 2026년 93억4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최권범 기자

광주시, 오피스텔·빌라 표준관리규약 제정

광주시는 최근 늘고 있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체계적 관리와 갈등 사전 예방, 분쟁 최소화 등을 위해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건물 1개 동에 소유주가 여럿인 건물을 말한다.

이번 표준관리규약은 광주시에 소재하는 집합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각 건축물의 사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단동형

공동주택, 단지형 공동주택, 상가 등 총 6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이번 표준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사·용역업자 선정에 관한 방법, 관리단집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완화 등이다.

광주시는 표준관리규약을 광주시 누리집에 공고해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상황에 맞는 관리규약을 만들고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노병하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문인 북구청장, 전진숙 국회의원 등이 지난 20일 광주 북구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북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개관식에서 축하 기념 발파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광주시, 생활문화교육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 개관

경양초에 지상3층 규모 건립
교육기능 추가 주민복합공간

기존의 문화·체육·돌봄 기능에 교사생장마루 등 교육 기능이 추가된 광주 유일의 생활문화교육 복합공간인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가 문을 열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강기정 시장, 이정선 시교육감, 문인 북구청장, 신수정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전진숙 국회의원,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생활문화 밀착형 시설인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를 개관했다.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는 북구 운암동 경양초등학교 유휴부지에 총사업비 133

억원(국비 21억원, 시비 37억원, 구비 43억원, 교육청 30억원)을 투입,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170.1㎡ 규모의 주민 생활형 사회기반시설(SOC)이다.

내부 공간은 1층에 방과후 아동 돌봄서비스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2층은 생활체육과 행사 개최를 위한 ‘다목적체육관’, 3층은 시민의 자율적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문화센터’로 꾸며졌다.

특히 다른 복합문화시설과는 달리 교사들의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사지원센터’가 마련돼 주민과 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개관식은 초대 공연팀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와 축

사, 사진촬영, 기념발파식,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강시장은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는 교육청과 광주시, 자치구, 정부가 함께 만든 소중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이 곳은 문화, 체육, 돌봄에 더해 교육까지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능을 모두 담고 있는 만큼 촘촘한 돌봄서비스와 광주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사랑방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교육청, 자치구, 중앙정부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생활서비스 복합공간 구축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전기차 배터리 재자원화 산업 선도”

‘재제조’사업 신규 국비 반영
‘재사용’·‘재활용’ 삼각축 구축

전남도는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재제조 배터리 안전 점검 등 기술 개발 사업 국비 24억원이 신규 반영돼 지역에서 배터리 재자원화 산업의 삼각축인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기반을 모두 갖추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재제조 배터리 안전 점검 등 기술 개발사업의 총사업비는 국비 190억원을 포함한 290억원이다. 2029년까지 나주에 재제조 배터리 안전 점검 및 산업 육성을 위

한 실증기반 등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배터리를 다시 활용하는 재자원화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전기차용 배터리를 수리해 다시 전기차로 활용하는 재제조, 전기차용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재사용, 리튬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이다.

전남도는 배터리 재자원화 외에 재사용과 재활용 산업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재사용 산업 육성을 위해 나주 혁신산업단지에 시험, 성능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 재활용을 위해 이차전지 소재산

업이 집적화한 광양에 친환경 재활용 공정 실증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부터 순환이용까지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정보센터’를 2023년부터 전액 국비(454억원)로 나주에 건립 중이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세계적으로 배터리 재자원화는 2050년까지 60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산업”이라며 “배터리 재자원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을 지원하는 기반 구축이 매우 중요한 만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